

율장·형사법 비교 등 응용불교 논문 '눈길'

동국대 올해 박사학위 논문 살펴보니

율장·형사법 비교 연구부터 종합학교 종교교육 등 다양

올해 동국대는 서울 캠퍼스에서 110명의 박사 학위자를 배출했다. 이중 불교학 전공자는 10명이고 인도철학·사학·중어중문학 등 인문학분야에서 불교를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은 3명이다.

특히 올해 박사학위 논문들도 응용불교 분야와 관련한 주제들이 많았다. 인접 분야도 종교교육과 형사법, 문학 등 다양했다.

눈길을 끄는 논문 중 하나는 박정호 박사의 학위논문 '승가율과 한국형사법의 비교연구'이다. 박정호 박사는 율장과 한국형사법을 비교 분석하고 계율을 현대사회적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 인지를 조망했다.

논문은 승가 계율과 현대 형사법의 비교점을 크게 율행(율行, 성법죄)·도계(盜戒, 절도)·살계(殺戒, 살인)·대망어(大妄語, 사기) 4가지 범죄행위로 접근했다. 그러면서 승가에서 분쟁에 따른 해결방법인 멸쟁법과 형사소송절차의 내용들을 비교분석했다.

박정호 박사는 "형사법과 율은 해당 공동체의 유지와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면서 "사회 변화에 승가율과 형사법이 상호 보완해 발전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학교 종교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 논문도 눈에 띈다. 김은영 박사의

학위논문인 <불교 종립 중등학교의 종교교육에 대한 비판적 연구-국가교육과정 변천과 종교학 교육방법을 중심으로>는 국가교육과정에서 종교 교육의 변화와 이에 따른 불교종립학교의 종교교육 영향을 살폈다.

김은영 박사의 논문에 따르면 국가교육과정은 종교 교과를 객관적 교양 교과로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으로서 불교종립학교의 종교 교육 역시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그러면서 인문학적 교양교육으로 불교교육과 종교학과 불교교육의 순환적 교수법을 제시했다.

김은영 박사는 "학교에서 정규교과로 시행되는 불교교육은 '국가교육과정-교양교과-종교학'이라는 보편성 안에서 자신만의 특수성을 찾아야 한다"면서 "학교현장에서 다른 교과나 전체 교육환경을 무시한 종교교육은 오히려 효과를 반감시킨다. 종교교과를 넘어 전체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운영방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과외(사학 전공) 박사는 학위논문 '신라 오대산 문수신앙 연구'를 통해 신라 오대산 문수신앙의 시기를 8세기 중엽으로 잡고 이에 대한 사상적 기반의 연원을 분석했다. 그는 "신라의 오대산 문수신앙은 성덕왕부터 경덕왕에 이르는 장기적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형성됐다"면서 "불국토 사상을 바탕으로 한 통일 신라의 북방정책에 발맞춰 오대산 일대의 안정화를 그 목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한국 간화선 수행, 변화가 절실하다

불교학연구회, 19~20일 동계워크숍 개최

간화선(看話禪)은 한국불교의 전통 수행법으로 수승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위빠사나 등 다양한 수행법들이 유입되면서 전통 수행법으로서의 자리를 위협받고 있다. 한국 간화선의 미래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불교학연구회(회장 최종남)는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한국 간화선, 미래는 있는가'를 주제로 동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현재 간화선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학자들의 비판들이 쏟아졌다. 주요 발제자로 나선 조명제 신라대 교수는 현재의 한국불교가 고답적인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사유체계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간화선이라는 틀에 매어 이뤄지는 논의는 애초부터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으며, 지금의 불교에 대한 철저한 자기 진단이나 성찰 없이 단순히 고답적인 입장의 옹호 등 전통적 맥락에 그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면서 "지금의 한국불교는 전통의 자부만으로 설득력을 갖기 어려우며, 현실적인 문제에도 대응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불교는 새로운 사유체계를 제시

할 주제나 중심이 없고 고답적 전통에 자족하고 있다"고 밝힌 조 교수는 간화선이 이 같은 전통을 상징·대변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고뇌하는 중생들에게 '지금 여기서' 불교가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화선 미래는 있는가 주제로

조명제 교수, 현 불교상황 비판

"시대 상황 맞는 이론 제시 無"

전재강 교수, 대안·해법 제시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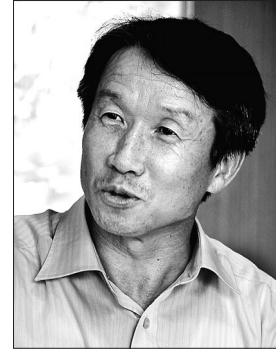
"지도자 양성과 수행 모델 개발"

전재강 안동대 교수는 '간화선, 미래와 전통'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간화선은 '깨달음으로 가는 최고의 수행법'임을 분명히 하고 대중화와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안거에 방부를 들인 수행자들의 말을 인용해 결제 인원 중 1/4 정도의 인원이 간화선이 아닌 위빠사나, 염



조명제 교수



전재강 교수

불선 등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교수는 "위빠사나 등은 수행의 효과를 빨리 볼 수 있고, 최근 수행자들이 남방불교 등을 배우고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며 "더 큰 문제는 간화선이 아닌 이 같은 수행을 간화선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간화선이 아닌 것을 간화선이라고 하는

고려 태조, 보살 예경 불화 보물됐다

문화재청 '태조 담무갈보살 예배도' 등 9건 보물 지정

고려 태조가 보살을 예경하고 있는 특이한 도상의 불화가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노영 필 아미타여래구존도 및 고려 태조 담무갈보살 예배도' 등 9건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2월 22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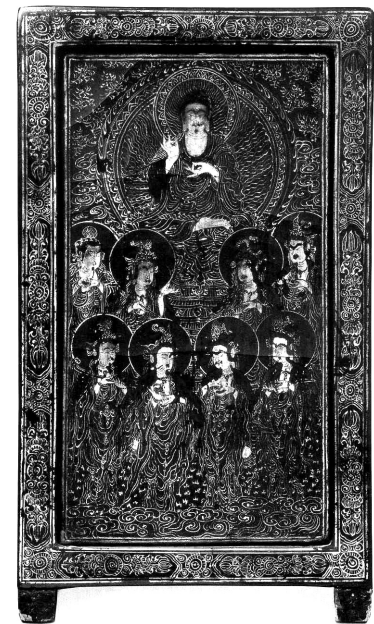
보물 제1887호로 지정된 '노영 필 아미타여래구존도 및 고려 태조 담무갈보살 예배도'는 1307년에 작가 노영(魯英)이 흑칠한 나무 바탕 위에 금니(金泥) 이 흑칠한 나무 바탕 위에 금니(金泥) 아교에 갠 금박(가루)로 그린 금선묘(金線描) 불화다. 앞면에는 아미타여래와 팔대보살을 표현했고, 뒷면에는 고려 태조가 금강산 배제(拜帖, 절고개)에서 담무갈보살에게 예경했다는 이야기가 그려졌다.

고려 시대 사경화(寫經畫, 불교 경전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 그림)를 연상시키는 뛰어난 금선묘 기법과 높은 완성도, 작가와 조성연대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고려 불화와 산수화공 연구에 있어

가치가 높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물 제1888호 '구례 천은사 삼장보살도'는 1776년에 천은사 대법당(극락전) 중단(中壇)에 봉안하기 위해 화련(華蓮) 등 14명의 화승(畫僧)이 제작한 것이다. 현존하는 삼장보살도 중 유일하게 화기(畫記)란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낱낱이 기록해 놓아 삼장보살의 도상(圖像)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보물 제1889호 '구례 천은사 목조관세음보살좌상 및 대세지보살좌상'은 보살상의 복장(服飾, 불상을 만들 때 배색에 봉안하는 사리 등의 물건)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에 따르면 태능(太能)과 영원(靈源)의 발원으로 조각승 현진(玄眞)을 비롯한 5명의 조각승이 1614년 6월에 조성한 불상이다. 이 2구의 보살상은 중생을 닮은 듯 실제감 있는 얼굴, 힘 있는 선묘, 늘씬한 비례감을 갖춘 17세기 전반기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보물 제1890호 '익산 심곡사 칠층석탑 출토 금동불갑 및 금동아미타여래질존



보물 제1887호로 지정된 '노영 필 아미타여래구존도 및 고려 태조 담무갈보살 예배도'. 앞면이 아미타여래구존도(사진 왼쪽)이며, 뒷면이 고려 태조 담무갈보살 예배도(사진 오른쪽)이다. 사경화의 형식으로 금선묘가 돋보이는 문화재이다.



좌상'은 원·명대 라마 불교 양식을 수용해 제작된 것으로 외래 양식의 전래와 수용 과정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다. 보물 제1891호 '서울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은 42수(手) 천수관음상으로, 고려-조선 초에 제작된 매우

드문 예로 평가받고 있다. 이밖에도 <역제나고>권6~7(보물 제1892호), <역공패설>(보물 제1893호), <퇴계선생문집>(보물 제1894호), <퇴계선생문집목판>(보물 제1895호) 등도 함께 지정됐다. **신성민 기자**

무형유산 전문 교육 실시한다

국립무형유산원, 11월까지 2개 분야 15개 과정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강경환)은 무형유산 전승자의 전문 역량을 개발하고, 국민들이 무형유산을 손쉽게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6년 무형유산교육'을 시행한다.

2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2016년 무형유산교육'은 '무형유산 전문교육'과 '무형유산 사회교육' 등 2개 분야 15개 과정으로 세분화하여 운영된다.

'무형유산 전문교육'은 보유자·전승교육조교·이수자 등 무형문화재 전승자를 대상으로 무형유산 관련 단체운영, 사회교육, 기획행사, 전승활동 등

대중적 저변을 확대하고 전승활동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기획됐다.

단기 교육과정은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 전문역량 강화 과정 △무형유산 지도자 리더십 강화 워크숍 △무형문화재 전승교육관 운영자 역량 강화과정 등이 열린다.

한편, 일반인과 학생, 교원,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무형유산 사회교육'은 △무형유산 체험교실 △무형유산 청소년 캠프 △시민공방 △대학연계교육 △교원아카데미 △찾아가는 무형유산 아카데미 △외국인 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063)280-1464 **신성민 기자**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우므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몸림,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용,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전생치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 낼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 현재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빛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꿔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 글쓴이 : 해천법사
- 책자 안 내
- ① 생전예수재는 “왜” 팔히 지내야만 하는가?
 -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 글쓴이 : 해천법사
- 책자 안 내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성심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